몸짓언어로 피어난 '우담바라'

김복희무용단 '우담바라' 공연
3월 5~6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대표레퍼토리와 '우담바라' 공연
목각불상 등 다양한 오브제 등장
인간존재의 소중함 표현한 안무
마지막장 환희의 군무 공연 백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무용가인 김복희 교수의 안무 '우담바라'

춤에서의 현대성과 현대춤에서의 한국성을 추구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이끌어온 현대무용가 김복희의 김복희무용단이 3월 5일부터 6일까지(오후 4시, 2회 공연)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 '우담바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안무가 김복희의 50년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한국무용사에 한 획을 그었던 대표 레퍼토리와 남지심 동명 소설을 원전으로 한 '우담바라'를 선보인다. 한국적이면서 불교적인 표현주의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온 안무가 김복희는 이번 공연 역시 그녀만의 연출법을 통해 춤의 본질과 극적인 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지심의 소설 〈우담바라〉는 1987년 제1권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제4권이 출간되면서 15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로 영화화되기까지 했다.

1부 'HISTORY'에서는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삶꽃 바람꽃 Ⅳ-신부', '거미집제례', '삶꽃 바람꽃 Ⅴ-눈길'을 선보인다.

'삶꽃 바람꽃 Ⅳ-신부(안무 김복희, 출연 김복희 손관중)'는 2006년 초연한 작품으로, 서정주의 동명 시를 원전으로 하여 '정조(貞操)와 오해와 기다림'이라는 한국적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첫날밤의 해프닝으로 신랑이 신부를 음탕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신부를 떠난다. 40년이 지나 신부네 집 앞을 지나던 신랑이 신부의 방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채 첫날밤 모습 그대로 앉아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어루만지니 신부는 한 줌 재가 되어 스러진다.

'거미집제례(안무 김복희, 출연 정혜진 김은정, 최재혁, 강동희)'는 2016년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김복희만의 독특한 움직임과 이야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사람들이 거미집에 걸린 생명의 흔적들이 발하는 회한을 바라보며 그들을 진혼한다. 전생의 땅 냄새를 맡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눈을 감더라도 마음은 감지 말라고, 홀로가 아니라 함께 통곡해주는 이가 있다고, 이승에서 만났던 그 모두가 또, 역시 그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외친다.

'삶꽃 바람꽃 Ⅴ-눈길(안무 김복희, 출연 윤미라, 권민찬)'은 이청준의 소설 〈눈길〉을 원전으로 한 작품으로, 소품들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적 현대무용'의 이미지와 추구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솟는 외로움을 무용으로 그려낸다.

2부에서는 지난해 30주년 기념공연에서 선보였던 '우담바라(안무 김복희)'를 공연한다. 한국적 현대무용의 한국성을 보여주는 작품 '우담바라'는 원작 소설의 이야기를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골라 그 장면들을 강조해 여러 장의 그림처럼 무대를 꾸민다.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 등장인물의 깊은 내면의 감정들이 만나고 부딪힘으로써 상징적 이미지들이 펼쳐진다. 모든 인간은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천상의 꽃 우담바라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인형, 목각불상, 불교의 수인 등 다양한 상징적 오브제들과 함께 춤으로 그려낸다. 각 인물을 표현한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마지막 장의 클라맥스에서 등장하는 군무는 관객을 압도한다. 특히 휘몰아치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속에서 원형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환희의 군무와 불상을 천에 담아 띄워 올리고 일렬로 내려앉는 엔딩은 공연의 백미다.

'우담바라'는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됐다. 첫 장면 '삶의 늪'에서는 인생의 늪에서 살아가는 채련, 동미, 한태서 등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그린다. 두 번째 장면 '타들어 가는 향(香)'에서는 남의 가문의 피를 지키기 위한 이씨 할머니를 중심으로 융, 당, 봉두 등의 이미지를 그린다. 세 번째 장면 '가슴 속 가슴'에서는 삶의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도 순결한 사랑이 싹트고, 지효를 사랑하는 봉두의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목각의 모양을 통해 사랑과 이해의 화합을 그린다. 네 번째 장면 '울림'에서는 화합과 사랑, 평화 그리고 윤회의 의미가 담긴 군무가 펼쳐진다.

현대무용가 김복희는 1971년 한국 최초의 개인 무용단을 창단해 '법열의 시' 등을 발표한 후 줄곧 한국적 현대무용을 추구해오고 있다. 1975년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김복희무용단'을 통해 열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국내뿐 아니라 남북미, 유럽, 아시아 등 무려 23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공연했다. 1986년 한국현대춤협회를 창단, 한국의 창작무용가들이 가장 서고 싶어 하는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의 창설을 주도했다.

(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무용학과 명예교수이다. '법열의 시', '요석, 신라의 외출', '우담바라' 등 7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2014년 옥저근정훈장 등 다수 수상했다. (02)2263-4680.

화엄사,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 개최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촬영 · 접수
개회식 3월 19일 홍매화나무 아래서
전문작가 부문 신설, 매년 개최키로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가 2022 홍매화 · 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화엄사는 지난해에 이어 매년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를 연중행사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화엄의 역사 공간에서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에 취하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콘테스트에서는 전문 사진작가 부문을 신설했다. 촬영 기간과 접수일은 3월 10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화엄사 홈페이지 접수창을 통해 업로드하면 된다. 프로 작가들의 경우 DSLR, DSLT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지난해 출품작.

출품은 개인당 1작품이다. 출품된 작품의 소유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이 공동으로 갖는다. 수상작 중 선택된 작품은 화엄사와 구례군 홍보책자 및 2023년 캘린더에 게재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화엄사 일주문에서 발열측정, Q체크 혹은 안심콜을 한 후 입장하게 되고 화엄사 신도회의 안내를 받게 된다. 촬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촬영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한다.

전문 사진작가 부문 시상내역은 △총무원장상 1명(300만원), △포교원장상 1명(200만원), △교육원장상 1명(200만원), △교구장스님상 1명(100만원)이며, 상장과 부상, 4인용 템플스테이 1박2일(4명) 체험권이 주어진다.

휴대폰 카메라 부문 시상내역은 △교구장스님상 1명 △부주지스님상 1명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상 △구례군체육회장상 △화엄사 신도회상이며, 상장과 부상이 함께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화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1)783-7600. 박재완 기자



'승무' 맥 이어가는 49일간의 이야기

이철진 '2022년 49일간의 승무 이야기'
3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성균소극장
승무 보유자 이애주 작고로 전승 위기
승무 미래 준비하고 전승 염원의 무대

한국 전통춤 '승무'의 맥을 잇고 있는 이철진 〈사진〉이 매년 이어온 공연 '승무 이야기'를 올해도 이어간다. 이철진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49일간의 승무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철진의 '승무 이야기'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49일간의 승무 이야기'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철진은 "올해는 한국의 전통춤 승무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맥이 끊길 위기에 있는 한영숙류 승무의 전승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2021년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였던 이애주 보유자가 작고함으로써 한성준, 한영숙, 이애주로 이어진 승무의 계보를 잇는 보유자가 없어 승무의 계보 전승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애주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무 전수곡 40분 전판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춤꾼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공연의 제목을 '49일간의 승무 이야기'로 정한 것은 2021년 작고한 이애주 영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49일의 의미를 부여해 영가를 위로하고 승무의 미래를 준비하기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철진은 "이제 전통춤은 문화재 1세대와 2세대를 거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춤인 승무가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공연이 많은 대중에게 승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일반 관객을 비롯해 전공자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연 시간은 주중 오후 7시 30분, 주말은 오후 4시다. (010)3826-4446. 박재완 기자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